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31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운동선수는 전사(戰士)가 아니다

이주욱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충남대학교 교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U-12 대회

한국 유소년 야구 대표팀 지도자, 국제 대회서 인종차별 발언 논란

배정훈 SBS 기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KUSF,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강사 위촉

황정일 한국대학신문 기자

[기고] 제 103회 울산전국체육대회

제103회 울산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오홍일 울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선수 심리, 멘탈 케어

성적 압박감 큰 선수, 체계적 멘털 관리 필요

김영서 일간스포츠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운동선수는 전사(戰士)가 아니다

이주욱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가 아니다. 더 이상 국가대표 선수들을 참전하는 군인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사명과 역할의 내용을 보면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윤리 발전 및 올바른 운영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스포츠에 있어 페어플레이 정신 확산과 폭력 금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를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다. 이어 스포츠가 인류적 봉사로 자리 잡고, 평화를 촉진하려 노력한다.”를 비롯해서 “차별에 대한 저항, 남녀평등”을 위시하여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하는 등 상징적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의 1장 6조에는 올림픽에서의 경쟁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스포츠는 인류의 봉사, 평화의 촉진, 인권의 성장 등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터에 나서는 전사에게 패배는 죽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전사가 아니다.
선수는 패배에 자유로워야 하며, 선수에게 경기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겹의 무늬를 펼치도록 기다려주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학생선수에게 주어진 학습권의 본질을 왜곡하며 ‘운동권’을 말하는 어이없는 세상
선수의 죽음에도 꿈쩍하지 않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값어치 없는 공약
낡아빠진 금빛만 좇아가며, 거꾸로 가는 시계를 쳐다보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선수의 인권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모범이 되는 승리’로 선순환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국가대표를 ‘태극전사’라 부르지 마라. 학생선수에게 ‘필승’의 구호를 강요하지 마라.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기가 필요하다. 희망의 노래가 절실하다.

2022.08.08

SBS NEWS
배정훈 기자

2022.08.03

한국 유소년 야구 대표팀 지도자, 국제 대회서 인종차별 발언 논란

초등학생들로 이뤄진 12세 이하 야구대표팀 지도자가 국제대회 경기 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U-12 대표팀 지도자 A 감독은 지난 1일 타이완 타이난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WBSC 12세 이하 월드컵 예선 라운드 도미니카공화국과 경기 공수교대 때 대표팀 선수들을 모아둔 채 상대 팀 선수들의 피부색을 언급하며 윽박질렀습니다.

A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상대 팀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학생 선수들은 "네!"라고 복창하기도 했습니다. A 감독의 목소리는 연맹 현지 중계방송 마이크에 잡혀 생생히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국내에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A 감독은 한창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비교육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야구인은 "스포츠를 통해 존중과 우정의 가치를 배워야 하는 어린이들이 승리만을 강요받고 인종 차별적 발언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초등학생 선수들조차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린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A 감독은 우리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한 취지였다며 상대 팀 선수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계 영상 등을 통해 A 감독의 발언을 확인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표팀이 귀국하는 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46908&plink=ORI&cooper=NAVER

KUSF,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강사 위촉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2022.08.04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이하 KUSF)가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난달 27일, 10명의 ‘KUSF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강사’를 위촉했다.

KUSF는 기존 대규모로 진행된 스포츠인권교육을 소규모 참여형 스포츠인권교육으로 전환, 대학운동부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지난해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했다. 올해는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에 걸쳐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참여자들은 스포츠인권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기본지식 함양 △커뮤니케이션 특강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인권교육 교안 학습 △강의시연 및 피드백 △강의점검 등 총 24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7월 27일 10명의 ‘KUSF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강사’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10명의 스포츠인권 교육강사는 올해 8월부터 KUSF 회원대학의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종현 KUSF 사무처장은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강사의 전문인력 풀을 구축해 대학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는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문화의 환경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2057

제103회 울산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경상일보

2022.08.01

오흥일 울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울산광역시 초대·2대 교육위원

전국체전이 오는 10월7~13일까지 일주일간 울산에서 열린다. 2005년 제86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 17년 만이다. 그동안 체육의 주변환경과 전국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2016년 전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고, 통합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거듭났다. 성적만 쫓다 보니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반성으로 '일등이 아닌 인권',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는 제103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17년 전, 제86회 전국체전의 공과와 100회 서울체전과 102회 경북체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정상적 대회인 만큼 성공개최와 울산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 승격 25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103회 울산체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도약·평화 체전'을 목표로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화합 체전 △자연과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관광 체전 △세계 에너지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미래 도약 체전 △한반도에 감동을 가져다주는 상생 평화 체전으로 열릴 예정이다.

2005년 제86회 전국체전의 성화는 금강산 채화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체전도 지역의 의미 있는 불을 모아 울산의 문화와 예술을 체육행사에 옷을 입히고 더하는 축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마두희 축제를 소개하면서 병영의 호신용 은장도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불을, 남구에서는 처용이 울산공단에서 채화한 불을, 동구에서는 봉수대 축제의 불을, 북구에서는 쇠부리 축제의 불을, 울주군에서는 옹기 축제의 불을 가져와 합화하고 여기에다 시는 수소 산업 선도도시의 의미를 담아 '수소의 불'까지 더 한다면 더욱 뜻깊은 성화 봉송 및 합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 여기다 '소통과 화합, 시민 대통합'이라는 이번 체전의 의미도 담아내면 더욱 뜻깊을 것이다.

제86회 체전에 비하여 체육 인프라가 많이 확충됐다. 문수 실내체육관 건립과 함께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문수스쿼시경기장도 마련됐다. 문수수영장의 수심도 180cm로 리모델링하여 공인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주 경기장인 울산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울산시티컨벤션 3층을 증축하여 역대 최고의 시설을 갖춘 17개 시도 상황실과 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하지만 49개 종목(시범 3종목) 가운데 자전거·사격·승마 등 8개 종목을 다른 시·도에서 치러야 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경기장 간 이동 거리가 짧고 접근성이 좋아 효율적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 근처 자연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카누, 수상스키,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을 통해 친환경생태도시로 변모한 울산의 모습을 새롭게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울산시와 시체육회에서는 육상·수영을 비롯한 11개 종목의 실업팀을, 구·군에서는 씨름·양궁 등 5종목의 실업팀을 각각 육성하고 있다. 올해 전국체전 성적향상을 위해 태권도·스쿼시 2개 팀을 창단하고 우슈와 체조·당구 종목에는 우수선수를 영입했으며, 배드민턴·탁구 등 4종목은 기업의 실업팀과 연고지 계약을 맺었다. 선수층이 얇은 대학부도 축구·테니스·씨름 등 육성 4종목에다 비육성 종목인 농구·탁구 등 9개 종목도 체전 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2회 경북전국체전에서 선전한 고등부도 중상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함께 종목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지원책을 마련했다.

인구 115만의 울산이 1000만의 서울, 경기도와 경쟁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 성적을 거두어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명예·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다.

제103회 울산전국체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소통과 화합, 시민 대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료 출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832

일간스포츠
김영서 기자

2022.08.04

성적 압박감 큰 선수, 체계적 멘털 관리 필요

한국 여자 농구 간판센터 박지수(24·청주 KB·1m96㎝)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선수 멘털 관리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청주 KB 관계자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박지수는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는 게 중요해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다. 전문의 소견으로는 현재로서는 쉬는 게 정답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음 달 FIBA(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준비를 위해 여자 농구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었던 박지수는 최근 공황장애 초기진단을 받아 대표팀 훈련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지수는 지난달 강원도 태백에서 치른 소속팀 전지훈련에 참여했다가 훈련이 종료될 시점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지난달 말께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대한농구협회와 소속팀의 지원을 받아 심리·약물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KB 구단 관계자는 "박지수는 주기적으로 내원 진료를 받을 것이다. 복귀 예상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수는 한국 여자 농구의 대들보다. 분당경영고를 졸업하고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KB에 입단한 그는 통산 세 차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두 차례 MVP에 올랐다. 지난 두 시즌 연속 7관왕에 오르는 업적도 이뤘다. 한국에서 시즌을 마친 뒤 여름에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며 큰 무대를 경험하고 있다.

농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수의 공황장애 발현 원인은 '성적에 따른 압박감' 때문이었다. 박지수는 이른 나이부터 '국보센터'로 불렸다. 대표팀뿐만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맹활약했다. 국내·외 대회마다 모든 관심을 받았다. 성적에 대한 책임은 부담으로도 다가왔지만, 박지수는 다른 선수에게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 워낙 강했다. 그게 압박감으로 되돌아왔다.

WKBL 6개 구단 중 KB만이 멘털 트레이너를 고용했다. KB 멘털 트레이너는 정규시즌 경기마다 동행하면서 선수들을 세심히 관리해준다. 라포(심리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선수들과 주기적으로 면담한다. 구단 내 신망도 두텁다. KB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수의 공황장애 증상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박지수와 면담을 자주 하는 멘털 트레이너 덕분이었다.

WKBL 관계자는 "박지수같이 영향력 있는 선수가 이러한 상황을 겪으니 다른 구단도 선수 멘털 관리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멘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어려우면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WKBL 측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는 심리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다. 여자 프로농구 구단이 멘털 트레이너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멘털 관련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WKBL에 따르면 그간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받은 교육 사례는 부정 방지 및 미디어 (대응) 교육이었다. 이 외에도 WKBL은 인권, 프로의식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자료 출처: https://isplus.com/2022/08/04/sports/sportsgeneral/20220804054909114.html

주간 스포츠 소식

경남체고 선수만 피해, 사격 대표 선발 책임은 누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888

'내가 보고 싶은 선수만'…와이에스티, '추계 중등축구대회' AI 중계 적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513071446669

NBA 11회 최다우승 '농구 전설' 빌 러셀 별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2/114764631/1

대전시체육회, 학생선수 재활훈련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https://www.news1.kr/articles/4759765

경북 김천서 전국 학생 도로 사이클 대회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63200053?input=1195m

위기의 道 소프트테니스, 선수부족에 전국체전 팀 구성도 어려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803580125

[태평로] 누가 스포츠 비정상화를 부추기나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2/08/08/45DUMRHOHRFO3FFU4EH2FG4JM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선수와 학생 구분없이 참가하는 '2022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쿼시대회', 9월 3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20805085507950718e70538d2_19

"프로야구 선수 꿈 확실해졌어요" 공주중 야구부 체험캠프 가져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6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